

***The 7<sup>th</sup> AKS CONGRESS OF KOREAN STUDIES***  
***HAWAII, NOVEMBER 5-7, 2014***

***Tourism and Cultural Exchange: Japanese Visiting Korea***

여행자의 변화와 문화교류: 한국을 찾는 일본인

Abstract

International tourism can be a significant force transforming both the infrastructure of the host society and the imagination of its people. In the case of South Korea, until recently when it was taken over by the so-called *youke* (遊客), Chinese tourists, Japanese have long occupied an undisputable position of the most numerous and meaningful foreign tourists visiting the country. While there had certainly been many Japanese visiting Korea during the historical periods -- envoys, soldiers, pirates, merchants or immigrants, etc. -- a modern form of tourism from Japan to Korea started in the beginning of the 20<sup>th</sup> century in the context of political and military encroachment leading to the ultimate amalgamation of the two countries in 1910. Characteristically, it was also the Japanese as colonizing authorities who began to build tourist infrastructure in Korea, railways, accommodation facilities, guide books, sites to visit, etc., with a clear aim of inducing Japanese to travel to the newly acquired (and acquiring) colonial territories.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ourism may reveal both the notions of “otherness” as well as the self-image of those who travel, this paper will examine how these notions have changed over time during the more than a hundred years of Japanese tourism to Korea.

*Submitted by:*

*Okpyo Moon (Professor of Anthropology, Academy of Korean Studies),*

*Email: [opmoon@aks.ac.kr](mailto:opmoon@aks.ac.kr)*

*Draft not to be cited without permission of author.*

## 1. 들어가는 말

한국과 일본 간의 근대적 형태의 관광여행은 일제 강점기에 시작되었다. 일본인들은 제국의 시정(施政)을 홍보하기 위해 조선, 만주, 대만, 남양주 등 확대해 가는 식민지역으로의 여행을 장려하였으며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한 일본여행협회 등 관련기구들도 여행자를 위한 홍보물과 안내서, 엽서 등의 발행을 통하여 특정한 형태의 관광목적지 이미지를 구축하고 전파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식민지로의 여행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와 도로의 건설, 숙박업소의 정비, 여행안내체계의 확립 등 근대적 관광 여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 실제로 한국 국내의 관광시설 및 수용체계는 많은 부분 일제 식민지기에 갖추어진 기본구조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해방 후 중단되었던 일본인의 한국관광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다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 추월 당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이 글의 목적은 이미 백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인의 한국관광의 과정에 보이는 ‘타자 인식’(otherness)과 ‘자기 인식’(self-image)의 변화과정과 그러한 변화가 양국의 관계에서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 2. 식민지 시기 일본인 한국관광의 성격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일본인의 한국여행은 이미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2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보다 본격적인 근대 관광 형태의 여행이 크게 증가하고 이러한 현상이 식민지 시기 말인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1800년대 말부터 1940년대에 이르는 4~50년 동안 많은 양의 여행기, 시찰 보고서 등이 발간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최근 수년간 역사학, 문학, 사회학, 인류학자들에 의한 연구물들이 유행처럼 출간되고 있다 (박양신 2003; 윤소영 2006, 2011; 조성운 2008, 2009, 2010, 2011; 임성모 2006; 국사편찬위원회·황민호 외 2008; 이한정·미즈노 다쓰로 편역 2009; 전수연 2010; 조성운 외 2011; 한정선 2011 등). 일본 국내 및 일본을 연구하는 해외의 학자들 중에도 일제 식민지배의 성격을 재고하려는 노력 속에 식민지 시대 여행기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예들이 발견된다 (Ryang 1997; Han 1997; 荒山正彦 1999; 有山照夫 2002 [조성운 외 역 2014]; 渡部宗助 1990; 三谷正憲 2005 등).

제 2차 세계대전의 진전과 더불어 식민지기 일본인의 한국관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은 줄어들게 되지만,<sup>1</sup> 전쟁 중에도 식민 지역으로의 여가여행은 일본 중산층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있었으며 총독부 조직의 핵심적 일부였던 조선 철도국은 계속하여 관광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었다 한다 (Ruoff 2010: 106). 그러나 해방 이후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더불어 재개되기까지 관광여행이라 할만한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한국방문여행이 주로 남성들을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1970년대 이후 2010년대에 이르는 50여 년의 기간 중에도 한국을 찾는 일본인의 여행 패턴과 동기, 내용 등에는 많은 변화가 보이지만 (문옥표 2006), 식민지기 일본인의 한국방문과 그 영향은 1970년대 이후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첫째, 식민지기에 한국을 방문하였던 일본인 여행객들은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지닌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다양한 목적으로 가지고 새로이 개척되는 식민 지역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일본인들의 배경은 다양하였으나 (木村健二 1989; 高崎宗司 2002), 시찰이나 수학여행 혹은 취재나 탐방, 학술조사, 문학적 여행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여행하였던 사람들은 당시의 수준으로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었던 해외여행의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계층이 아니고는 참가하기가 어려웠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식민지 시대의 방한자(訪韓者)들, 그들 중에서도 특히 여행기록을 남긴 일본인들의 대부분은 지식층이며 엘리트 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 점은 물론 경제적 문제와도 관련되고 있지만 기존의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행기를 포함하여 기록을 남긴 여행자의 대부분은 시찰단, 언론사 특파원, 정부나 기타 단체의 촉탁 등의 자격으로 한국을 여행하였다. 이러한 점은 문학 등의 분야의 글을 쓰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대부분 그러한 지원단체들로부터 여행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받거나 하였다. 심지어 각급 학교의 수학 여행단의 경우에도 군(軍)에서 수송편을 지원받거나, 할인을 받거나 하였다 (有山照夫 2002 [조성운 외 역 2014]). 1920년대 이후 해외 여행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지향 및 쾌락 목적의 관광객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여행기록을 남긴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행객의 특징은 그들이 남긴 여행기의 성격을 어느 정도 특징 짓는다. 즉 대부분이 소위 식민 담론이나 ‘제국 의식’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의 글쓰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이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지적하여야 할 것은 남겨진 여행기록의 저자들이

---

<sup>1</sup> 박양신에 따르면 1940년 경이 되면 해외수학여행에 대한 실질적 금지조치가 내려지고 일본 국내 수학여행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해졌다고 한다 (박양신 2003: 105).

대부분 남성이었다는 점이다. 서구의 경우 제국의 확산과 더불어 식민지역을 여행한 여성들이 남긴 기행문은 남성들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여성 여행기 작가들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남성 여행가들과는 달리 ‘국민’이나 ‘인종’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접촉하는 경향을 보이며,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한다고 한다 (박지향 2000: 152). 여성들의 여행기에서는 또한 ‘참회적’ 모델이 발견되며, 남성들에 비해 자신들이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많은 신경을 쓰며 자신의 감정을 보다 솔직하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 들어서 여행기를 분석함에 있어 젠더의 요소가 항상 독립적인 변수로 다루어지기 어려우며, 계층적, 인종적 배경이나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따른 차이를 동시에 반영함으로 직접적으로 젠더와 글쓰기의 성격이나 내용을 연결시켜 분석하는 시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지만 적어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임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19세기말 20세기 초에 걸쳐 식민지역을 여행한 일본인 여행자의 기록 중 여성들에 의한 것은 매우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현상으로 주목할 만 하다.<sup>2</sup>

마지막으로 식민지기의 일본인의 한국관광의 영향과 관련하여 지적하여야 할 것은 그것이 물론 일본의 본토를 의미하는 ‘내지’에서 식민지역으로 떠나는 여행이었으나 이미 그들을 위한 한국 내 관광의 하부구조는 한국인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인들에 의해 일본인들을 위해 개발되고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내의 관광 지역은 일본인들이 식민경영을 목적으로 건설한 철도 연변을 따라 개발되었으며, 벚꽃 구경이나 온천기행 등 일본인의 취향을 고려한 테마 관광지의 개발 또한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경주나 부여 등 일본인들이 중점적인 관광 대상으로 개발하였던 한국의 역사유적 또한 그들의 역사해석에 의해 고대 일본과 한국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이미 식민화된 한국의 역사를 대일본 제국의 확고한 일부로 구축하려는 목적을 지닌 ‘유산화’ (heritization)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윤소영 2005; 차순영 2008; 최석영 등 참조)

---

<sup>2</sup> 식민지기 한국을 찾았던 여행자 중 주요 부분을 차지하였던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여학교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여행일기를 남긴 경우도 있다 (奈良高等師範學校 1939). 또한 1928년에 만철(滿鐵)의 초청으로 만주여행길에 올랐던 작가인 요사노 아키코 부부의 여행기에도 여성으로서의 시각이 드러나 있을 것으로 보인다 (与謝野寛·与謝野晶子 1930, 임성모 2006: 109-110에서 재인용). 나라여자고등사범학교 학생의 여행일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할 것이나 오사노 아키코 부부의 여행기는 아직 입수하지 못하였다.

## 2. 여행기록에 보이는 시기별 특징

최근의 여행기 분석 연구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시각의 하나는 여행기들이 “오리엔탈리즘적 타자인식, 즉 제국의식을 고양” 시키는 데 기여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식민지기에 한국을 여행한 일본인들은 그들의 여행기록을 통하여 불결, 낙후, 나태, 무기력, 부패 등의 부정적, ‘반문명적’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재생산 해 냄으로서 보는 자로서의 일본인과 대상으로의 한국인을 구별 짓고, 일본인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그들 불쌍한 인민들을 구해야 하는 문명화의 사명, 즉 제국의식으로서의 ‘일본인의 책무’를 확인 시키는 기능을 하였다는 것이다 (박양신 2003: 127).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1940년대에 식민지 조선을 여행한 일본인들의 기록을 보다 면밀히 살펴 보면 그 내용은 시기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른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특징에 따라 크게 다음의 세 시기로 나누어 보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첫째는 정한론이 대두되고 조선 침략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19세기 말에서부터 상업적인 관광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20년대 이전까지의 시기이며, 두 번째로는 경제적, 전략적 목적에서 식민지로의 관광 여행이 크게 장려되고 확산되었던 1920년대와 1930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화주의 정책이 상당히 진행되고 교통수단이나, 관광안내체계 등 식민지에 일본인들을 중심 대상으로 하는 관광인프라가 확고히 정착된 1940년대 이후의 시기이다. 물론 이러한 시기 구분은 잠정적인 것이고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또한 19세기말에서 1910년, 합방 후 1935년까지 및 그 이후로 나누는 것이 시기별 특징을 보다 잘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시도한다면 이 세 시기의 특징은 크게 “제국기획과 오리엔탈라이징의 시기”(19세기말~1920년), “근대적 관광 대상지로서의 조선”(1920년대, 1930년대), 그리고 “동화주의와 관광 진흥의 모순”(1940년대 이후)이라는 주제와 관련 지어 살펴보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 1) 제국기획과 오리엔탈라이징의 시기(19세기말~1920년)

이 시기에 조선을 여행한 일본인들의 여행기록들은 특히 조선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박양신(2003)은 “19세기말 일본인의 조선 여행기에 나타난 조선상”에 제시되고 있는 조선과 조선인의 이미지는 불결, 게으름, 무기력과 정치 부패이며 야만의 대명사인 아프리카보다도 형편없는 곳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리들의 부패와 조선 인민의 게으름과 내일을 도모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의 강조는

조선이 쇠망해 가고 있음을 인상 짓고, 나아가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여 불쌍한 인민들을 구해야 할 필요성을 유도해 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조선인상은 ‘백인들의 책무’가 아닌 ‘일본인의 책무’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다. 문명화의 사명, 이는 바로 ‘제국의식’의 주요한 축인 것이다”(127)고 결론짓는다.

Peter Duus(1995)에 의해 분석된 19세기말에서 한일합방 이전까지의 일본인들의 여행기록에서도 이러한 극도로 부정적인 이미지의 생산은 반복되고 있다. 즉 그는 (긴담뱃대로 상징되는) 게으름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보이는) 낙후, 빈곤, 오물 등과 함께 가장 핵심적으로 조선인의 삶을 특징짓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아라카와고로(荒川五郎)는 1906년에 발간된 “최근의 조선사정”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보이는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외면적, 신체적 유사성을 주목하면서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무언가 비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은 벌려 있고, 눈은 멍청하며 무언가 모자란 것으로 보인다.... 위생이나 질병의 문제에 이르면 그들의 영성함은 극치에 달한다. 아주 나쁘게 말한다면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 짐승에 가깝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Duus 1995: 398, 필자역).

당시의 여행기 중에서도 가장 경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오키타 킨죠의 “이면(裏面)의 한국”에서는 한국의 일곱 가지 주산물은 “똥, 담배, 이(lice), 기생(妓生), 호랑이, 돼지, 파리”라 하며 “한국인들은 (바보처럼) 천하태평이고, 악취가 나며, 더럽고, 불쌍하고, 허약하며, 무질서하고, 반사회적이며, 가난에 찌들어 있고, 야만적이고, 유치하며, 게으르고, 방탕하며, 의심이 많고, 내성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인의 악(vice)은 사기, 도둑질, 도박, 뇌물, 간음, 사악함, 음험함이고, 한국인들의 형편없는 주거 환경은 미개부족의 그것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다”고 단언한다 (Duus 1995: 401-402, 필자역).

Duus는 당시의 여행기나 안내 책자들에 끊임없이 재현된 조선에 대한 이와 같은 극도로 부정적인 이미지와 선전이 전달하고자 하였던 메시지는 바로 일본에 의한 식민 지배를 통한 구원이었다고 본다 (Duus 406). 즉 한국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아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은 빈곤과 더러움, 무기력함에서 끌어내어 줄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며, 한국인들의 악(惡)을 만들어 낸 부당함을 깨끗이 씻어 냄으로서 “밝은 태양과 공기,” 즉 근대성과 문명의 세계로 이끌어 내 줄 수 있는 일본에 의한 지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2) 관광대상지로의 조선(1920년대~1930년대)

관광이 소비문화의 주요부문을 구성하였던 1920년대, 30년대의 여행기록에 그려지는

조선의 모습은 이전의 시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이 시기에는 식민지화 이전의 초기 여행기록에 보이는 극단적인 부정적 표상(재현)은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 일본과 다른 한국적 경관 (landscape)의 새로운 발견과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인접성’(cultural affinity), 그리고 한국문화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전면에 드러난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 여행객의 변화와 관련되는 것일 수도 있다. 식민지라 하더라도 해외인 만큼 한국을 여행할 수 있는 일본인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엘리트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음은 틀림없으나, 1920년대 이후에는 관광여행이 보다 대중화 되며, 따라서 조선의 식민지화에 직접, 간접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도자 층의 사람들만이 조선을 여행한 것은 아니었다.

우선 1899년 경인선을 시작으로 진행된 철도의 확산은 관광의 성격과 내용을 변화시켰다. 철도 연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지가 새롭게 형성되었으며, 이들을 잇는 관광열차의 운행 및 테마관광의 발달 등으로 이어졌다 (성주현 2011: 207). 조선총독부 철도국을 비롯하여 사설 철도 회사나 역에서도 수입 증가의 한 방법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안내책자들을 발간하였다. 이들 안내서는 대부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관광이 보다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1920년대 이후에는 각종 사회단체, 청년단체, 학교 등에서 시찰단, 탐승단(探勝團), 수학 여행단을 조직하여 관광에 나서게 된다. 식민통치의 치적을 확인시키기 위해 마련한 1915년의 조선공진회와 1929년의 조선박람회 등도 관광의 확산에 일조하였으며, 명치 초 이후 성장 일로에 있던 일본 국내의 백화점들에서도 조선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기획이나 전시회, 행사 등을 개최하여 여행객들을 유인하였다.

이들은 조선을 어떤 의미에서는 당시의 일본과 비교해 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일본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타야마 카호(田山花袋)는 일본의 생활양식이 12세기의 카마쿠라 시대 이래 크게 변화한 데 반해 조선에서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으며, 의복, 주거, 길, 교통을 포함하여 모든 것은 일본의 옛날과 똑 같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선에서 편안히 느끼는 이유이다. 만일 후지와라 시대나 헤이안 시대의 심미감(aesthetics)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조선을 보아야 한다” (田山花袋 1924:343, Ryang 1997:141에서 재인용). 마찬가지로 시마무라 호케츠(島村抱月)도 일본인들이 조선의 아름다운 경관에서 발견하는 것은 “고풍스러운 조선의 집들과 고대 일본 황실의 귀족을 닮았으나 지금은 너무 가난해져 낡아 빠진 관복을 걸치고 가축이나 돌보게 되어 버린 농민들이다”(島村抱月 1918: 12, Ryang 1997:141에서 재인용)라 하였다.

인류학자인 소냐 량(Sonia Ryang)은 이러한 여행기 내용의 변화는 동화(同化)의 논리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글, 앞면). 즉 합병 이전의 기록에 나타나는 지나칠 정도의 비하와 열등성의 강조가 당시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합병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일본 제국의 일부가 된 식민지 조선은 일본의 과거와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에서 과거의 일본, 비록 발전에서 뒤져 있기는 하지만 일본과 같은 뿌리를 갖는 조선을 “발견”하는 진화주의의 책략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다.

1930년대 후반이 되면 매년 만 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조선을 여행하였다고 한다 (Ruoff 2010: 116). 경성택시회사에서 운행하는 경성 버스 투어는 겨울을 제외하고(겨울에는 1회) 매일 2회씩 운행할 정도의 수요가 있었으며 일정한 루트와 안내체계도 정착되어 있었다. 경성 버스 투어의 코스는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남대문을 거쳐, 조선신궁, 장충단 공원(그 부근의 박문사), 동대문, 성균관, 창경원, 총독부 청사, 덕수궁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된 대상은 조선의 역사유적과 식민지 행정의 중심시설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39년에 수학 여행단의 일원으로 만주와 조선을 여행한 기록에도 경성견학은 승례문, 상공장려관, 조선신궁, 장충단 공원, 덕수궁, 경성부청, 종묘, 창경원, 대학로 (당시 경성제대, 경성공업학교, 경성 상업, 여자의전, 의학전문학교 등이 모여 있음)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 된다.

경성 이외에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시의 전적지들을 포함하여 개성, 평양, 부여, 공주, 경주, 부산 등 조선 내의 다른 도시들에 관한 관광안내서들이 발간되었으며, 또한 벗 꽃 기행, 온천 기행, 금강산 유람 등이 테마가 있는 행로들도 널리 선전되고 소비되었다 (성지현 2011; 李良姬 2004). 그러한 배경에는 물론 철로나 숙박시설, 안내 체계를 포함하는 근대적 관광의 하부구조가 발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 이제 식민지 조선은 쾌락을 위한 관광여행지로 상업화되고, 소비 되었다.

근대의 관광이 식민지배, 제국주의, 민족주의, 심지어 파시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발전하였고, 여행기록에 나타나는 관광 대상의 이미지는 정치적 목적으로 구축되는 이미지를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능하였으나, 관광의 상업화, 대중화와 더불어 그 관련성은 애매해지는 측면도 있다. 그것은 상업화된 관광여행은 항상 위로부터 강제될 수만은 없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자발적인” (voluntary)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행기의 내용도 정치적 선전이나 경제적 이윤추구를 위한 식민지 전략의 목적과 반드시 부합되지 않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 3) 동화주의 정책과 식민지 관광 진흥의 모순(1940년대 이후)

일제에 의한 조선지배는 초기부터 동화주의를 추구하였다. 그것은 구미의 타민족 지배와 일본의 아시아 지배를 구별 짓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구미의 식민지배가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자신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민족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인데 반해 일본의 아시아 지배는 같은 뿌리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덜 발달된 지역을 문명화, 근대화 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화주의 정책은 식민주의 질서와 유지라는 이해관계와 항상 일치하기는 어렵다. 관광객은 자신과 다른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반면 동화주의가 진행될수록 그러한 이국성은 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름”이 보존되고 구축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관광은 도시의 건설이나 유적지의 구축 등 많은 식민 기획에 있어 식민 모국으로부터의 방문객들이 보고자 하는 이국적인 “원주민의 영역”(native enclaves)을 보존하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식민지배자들이 식민지의 관광 자원을 자신들의 뜻대로 마음껏 개발하고, 변형시키고, 부호화하고 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모로코의 경우 프랑스의 도시 계획가들은 방문객들의 동양(Orient)에 대한 기대에 부응 하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지역을 건설하였다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다른 많은 유럽의 식민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구미의 식민지역과 비교해 볼 때 일본과 같이 지속적으로 동화정책을 추진해 온 경우 관광객들을 위한 관음적 목적에서 원주민 문화의 일정 요소들을 보존하는 것은 훨씬 힘든 작업이었다. 그러나 조선을 여행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은 무언가 이국적인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가능한 한 “조선적인 것”을 느껴보기를 갈망하였다. 조선철도국에서 1920년대, 30년대 걸쳐 건설한 많은 역들을 특별한 예산을 들여 전통적인 조선의 건축양식으로 지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다 (안창모 2004).

조선이 보다 확고하게 일본제국의 일부로 느껴지고 있던 1930년대말 1940년대 초 조선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은 이전보다 더 식민 모국과 다른 “진정한 조선”(authentic Korea)의 경험을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근대화의 손길이 닿지 않은 농촌에 대한 관심이나, 건축, 의상(특히 白衣), 사찰, 등에 대한 관심은 그것을 보여 준다. 관광객들은 특별히 “무대화된 진정성”(staged authenticity)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조선적인 것에도 감수성을 드러내었다. 다음은 1939년 만주와 조선을

여행하였던 나라여자고등사범학교 학생의 여행기의 일부분이다.

“밥그릇을 얹어 놓은 것 같은 초가집 지붕은 굉장히 낮고 집의 입구는 넓다. 어떤 집에서는 새하얀 빨래를 널어놓고 있다. 조선 사람들은 빨래를 좋아해서 작은 웅덩이라도 보이면 빨래를 한다고 한다. 흰 옷은 여름에 특히 보기 좋다. 그리고 그 빨래의 둥그스름하고 단정하게 부풀러 오른 모양은 초가집 지붕의 선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산에서도, 여자의 얼굴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조선이 가지는 느낌 중의 하나이고 자연과 사람과의 융합이며 의식하지 않아도 미묘하게 만들어진 것이 웬 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 아가씨들은 분홍 색이나 하늘 색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기생을 본 적이 없는 우리는 하얗고 긴 수염, 높은 모자를 쓴 선인(仙人)과 같은 조선인 할아버지에게 많이 마음이 끌렸다. 지팡이를 짚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얀 옷을 입으신 모습은 장식품과 같이 조용하고 평온했다. 조선 사람들은 대체로 굉장히 조용하다.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종속해 온 역사가 만든 성격일 것이다.”(昭和十四年度大陸旅行 生徒日記 八月二十三日, 필자역)

“나는 여기서도 인식을 시정해야 했다. (조선 민족은) 진통과 자부심을 지니고 새로운 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형태만의 내선융화(內鮮融和)보다 우리는 보다 올바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높은 데까지 끌려 올려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昭和十四年度大陸旅行 生徒日記 九月二日, 필자역).

이와 같은 내용은 19세기 말 여행기들에 보이는 “조선 = 더러움, 낙후, 무지 등”의 비하 이미지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이것이 단순히 시기별 차이인지? 남성과 여성의 차이인지? 아니면 관광객/여행자가 누구였는가에 따른 것인지? 등등의 문제는 좀 더 자료를 검토하여야 알 수 있는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차이가 19세기 말에서 1940년대에 이르는 40-50여 년간 한국(조선)이 전혀 다른 곳으로 변하였거나 조선 민족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로 변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시선이 의도적이었던 아니었던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으며, 다른 것을 보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 4. 맺음말

식민지 시대 일본인들의 한국여행기에 보이는 차이는 흔히 “식민담론의 균열”로 해석되었다 (Ryang 1997; 임성모 2006), 그리고 그러한 해석은 곧 식민지배라는 것을 초지일관 지배와 억압과 착취 만을 지향한 하나의 일관되고 통합된 전체적인 체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논의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나는 여행기록의 내용에 보이는 시기별 차이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당시의 여행기록의 일부에서 보이는 차이는 식민담론의 “균열”의 흔적으로 보다는 식민지배의 장기화에 따르는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가정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후기의 여행에서도 임진왜란의 전적지를 방문하고, 일본 통치의 ‘업적’을 둘러보며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희생된 일본인의 위령을 추모하는 코스들이 포함되는 기본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 여행의 경우 일단 조선행 배에 승선한 후에는 예외 없이 일본군의 용맹하고 위대한 전공(戰功)에 대한 강연을 듣거나 조선이나 만주로의 이민이나 진출의 의미를 강조하는 연설을 듣는 등의 과정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역사나 경관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드러내고, 일방적인 비하와 경멸에서 벗어나 식민지배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피지배민족의 입장에 대한 고려를 보이는 후기의 여행기들도 식민지배의 담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그보다는 식민지배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다 자신감이 생긴 여행객들은 이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조선민족의 열등성을 강조하여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해야만 하는 강박적인 ‘타자화’ (othering)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20세기 초 일본인의 해외여행을 분석한 아리야마 테루오는 식민지역으로의 최초의 단체 유람여행이었던 1906년의 만한순유단(滿韓巡遊團)의 경우 서구와의 관계에서 늘 보이는 대상이었던 일본이 식민지와와의 관계에서 ‘보는 자’로서의 새로운 주체를 확립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신들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有山照夫 2002). 그와 같은 불안은 후기로 갈수록 현저하게 줄어들며, 지배자로의 일본인에 대한 자기 성찰이나 보다 친절하고 배려하는 지배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여유로 표현된다.\*

<참고문헌 생략>